

정치 주체 개념의 분리와 통합*

— 박명규 · 박찬승의 개념사연구 —

윤해동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교수

■ **논문분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상

■ **주 제 어** 개념사, 정치 주체, 국민, 인민, 시민, 민족, 민족주의

■ **요 약 문**

근래에 발간된 두 권의 개념사 저작 곧 박명규의 『국민·인민·시민』과 박찬승의 『민족·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개념 가운데서도 특히 다루기 어려운 정치 주체 개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둘째, 서구 개념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번역되어 한국에 수용되었던 과정 곧 '이중의 굴절' 과정을 잘 다루고 있는 점, 셋째, 사회사의 문제의식을 강하게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이다. 그러나 박명규의 연구는 크게 보아 명칭론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언어의 사회사'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박찬승의 연구는 어의론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역사의미론'과 유사한 효과를 낳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유사성을 가진 정치 주체 개념을 두 저작이 분리하여 다룸으로써 발생한 역효과도 만만찮은 것처럼 보인다. 첫째 정치 주체의 전체적 변화양상을 그려내는 데에 실패하고 있고, 둘째 개념사와 사회사의 종합이라는 의도를 이루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전통적 개념과의 관련성을 설정하는 데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리하여 특히 박찬승의 연구는 이데올로기 연구와 구별하기 어려운 차원으로 변화해 버린 것처럼 보인다.

개념사 연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개념의 수용만이 아니라 해방 후 개념의 변화양상까지 아울러 시야에 넣어야 할 것이며, 도구로서의 개념사 연구를 잘 활용하여 식민지근대의 독특한 면모를 해명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접수일(2010.12.3), 심사 및 수정(2010.12.15), 게재확정일(2010.12.16)

1. 개념사 연구의 현재

이 글에서는 박명규 교수(이하 모든 호칭 생략)의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¹⁾와 박찬승의 『민족·민족주의』²⁾라는 두 권의 ‘묵직한’ 개념사 저작을 중심으로, 현금의 한국 개념사 연구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지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근대 한국의 정치 주체를 개념사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다룬 이 두 권의 저작은 모두 한림과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개념사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한국 학계가 처한 ‘개념사 연구의 현재’를 잘 보여 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이 두 저작은 지금까지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서도 또 개념사 연구의 대상 가운데서도 가장 다루기 버거웠던, 정치 주체 개념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라는 점이다. 특히 논쟁적이기로 ‘악명 높은’ 민족 개념과 국민 개념을 능숙하게 다루어 세련된 결과로 제출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그 성과는 제쳐 두고라도, 높은 평가를 유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평가는 가히 한국 학계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성숙성을 실감해 보기도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거론하듯이, 한국의 개념사 연구는, 곧 서구에서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개념이, 주로 일본 아니면 중국에서 어떻게 번역되어서,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 수용되어 굴절되고 정착되었는가고 하는 3중의 중첩된 과제를 다루어야 하는 ‘숙명’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영선은 그것을 ‘한반도 개념사의 심층구조’³⁾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개념의 번역 혹은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이중의 굴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타문화권 번역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번역과 전유의 다층적 과정’⁴⁾ 역시, 이런 이중의 굴절을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중의 굴절이라는 일종의 딜레마는 이미 개념을 수용할 당시부터 한국인들에 의해 의식되고 있었다. 한국 교포들이 미국에서 발간하던 『공립신보』의 논설에는 그 어려움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림자의 그림자’이며, 그러니 왜 오리지널을 공부할 수 있는 미국에 와서 적어도 스스로의 ‘그림자’를 형성하지 않는가.”⁵⁾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유학해서 서구의 보편적 언어를 학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개념 수용에서의 이중의 굴절이란, 이처럼 ‘그림자의 그림자’를 형성하는 과정과 깊은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어쨌든 위의 두 저작은 이런 <이중의 굴절>이라는 문제의식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연구 과정에 잘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념사 연구의 방향타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두 저작 모두 개념사 연구가 사회사의 문제의식과 접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라 할 것이다. 특히 박명규는 ‘한자 문명과 유교 이념’ 하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전통 개념이, 근대에 들어 서구로부터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고 그 번역어로 사용되면서 의미에 큰 전환이 일어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격변과 맞물리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함의도 내포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과 그 의미를 ‘개념사와 사회사의 종합’을 통해 추적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⁶⁾

하지만 이 두 저작을 평가할 때에, 개념사에 접근하는 데서 두 저작이 드러내는 차이점은 우선적으로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 두 저작은

1) 박명규, 2009,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소화.

3) 하영선, 2009, 「삼중 어려움의 좌절과 극복」, 하영선 외 지음,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21~35쪽.

4) 멜빈 리히터, 황정아 옮김, 2009, 「개념사, 번역, 그리고 상호문화적 개념 전이」, 박근갑 외 지음,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191~227쪽.

5) 『공립신보』 1908년 7월 8일자, 이현미, 2009, 「대한제국의 ‘영웅’ 개념」, 하영선 외, 앞의 책, 374쪽에서 재인용.

6) 박명규, 2009, 앞의 책, 17~21쪽.

개념사를 대하는 태도나 개념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상당한 공통점과 아울러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바, 이 차이는 이 두 저작을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독일 개념사 연구의 권위자 코젤렉(R. Koselleck)에 따르면, 정치-사회적 개념어에는 세 가지의 시간층(time strata)이 동시에 중첩될 수 있다고 하는바, 첫째는 오래전에 존재하던 용어로 지금도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존속하고 있는 개념, 둘째로는 이전에도 단어로는 존재했으나 사회적으로 재구성되고 재번역되어 그 의미가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 셋째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 있다는 것이다.⁷⁾ 박명규는 정치 주체 가운데서도 국민, 인민, 시민이라는 유사 개념 세 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박찬승은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동일 계열의 개념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코젤렉의 분류에 따르면 박명규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세 개의 개념은 모두 둘째 유형에 해당하는 반면, 박찬승이 다루는 개념은 셋째 개념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루는 주체 개념이 가진 시간성의 차이는 두 저작의 성격을 확연히 다르게 구분하게 되는바, 그 차이는 다시 개념사에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개념과 단어가 갖는 관계들에 착안하여, 서구에서의 개념사 연구는 고유한 연구방법론을 발전시켰다. 개념사는 한 단어에 갖는 의미와 그것의 변화를 연구하는 어의론(語義論 혹은 總義論, semasiology)적 분석과, 한 대상 혹은 한 개념에 대한 다양한 지칭어들 및 유관용어들을 연구하는 명칭론(名稱論 혹은 總稱論, onomasiology) 분석을 교대로 구사한다. 이를 통해 단어의 의미 변화와 역사적 실제의 변화, 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지칭어의 출현과정(개념화 과정)이 갖는 다양한 관련성이 밀도 높게 분석되는 것이다.⁸⁾

이런 개념사 방법론의 분류에 따르면, 박찬승은 주로 어의론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통시적인 〈역사의미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구가 나아가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접근방식은 박찬승의 연구가 〈언어의 사회사〉 곧 공시적인 언어 연구가 누락된 어의론적 연구가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전통적인 사상사(혹은 관념사)와 유사한 연구로 귀결되어 버릴 위험성을 높일게 된다. 이에 반해 박명규는 크게 보면 명칭론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박명규의 연구 역시 기본적으로는 역사의미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칭론적 방법론이 공시적인 접근법으로서의 〈언어의 사회사〉가 가지는 효과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박명규는 국민, 인민, 시민 개념을 동태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근대 한국 정치주체 형성의 메커니즘을 역동적으로 드러내는 데도 성공하고 있다. 국민, 인민, 시민이 중심으로 사용되는 시기의 정치적 과제와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에 각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주체 개념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그런데 위의 두 저작은 유사한 두 종류의 정치 주체 개념을 분리하여 각기 연구를 진행했던바, 이런 방식의 분리된 연구는 몇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평자는 이 두 저작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정치 주체 개념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데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거론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거론하는 문제점들은 한국 개념사 연구의 현재를 가늠하는 데에도 중요한 입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멜빈 리히터, 2009, 앞의 논문, 199쪽.

8) 나인호, 2009, 「개념사는 어째서 새로운가」, 박근갑 외 지음, 앞의 책, 161~191쪽.

1) 근대 한국 정치 주체의 전체적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가?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정치 주체 개념을 분리하여 각기 개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근대 한국의 정치 주체의 변화양상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제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우선 nation 개념의 번역과 수용문제를 살펴보자. 동아시아 사회에서 nation의 번역어로는 국민과 민족이 혼용되었고, 서구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복합적인 함의가 착종하고 있었다. 박명규는 국민 개념이 18세기 이래 유럽의 근대문명이 앞서 이룩한 정치발전과 함께 나타난 네이션과 동어의(同義語)라는 사실을 논의의 전제로 삼는다.⁹⁾ 민족이 네이션의 번역어라는 점은 박찬승에게도 역시 대전제로 성립한다.¹⁰⁾ 그러나 역으로 번역어인 민족이라는 개념은 박명규가 다른 정치 주체 개념인 국민, 시민, 인민뿐만 아니라, 민중이나 중서(衆庶), 신민(臣民), 신민(新民), 민인(民人) 등의 개념과도 중첩되고 착종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박명규가 다른 국민 개념도 이와 동일한 측면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다.

정치 주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근대 개념어 번역·수용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는 사실은, nation 개념이 국민과 민족으로 분리되어 수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개념의 분리와 새로운 전용과정, 두 저자에 의해 분리되어 다루어짐으로써 nation을 둘러싼 개념의 수용·변화 양상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다. 강동국의 연구는 이런 측면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¹¹⁾ 1910년까지의 초기 개념 수용의 과정에서는 국민/인종/민족이라는 세 가지의 유사 개념이 경쟁하였는데, 처음에는 인종이 다음에는 국민이 우세를 차지하였으나 최종적인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강동국의 연구는 국제정치 상황과 정치 주체의 변화와 아울러 nation과 관련한 정치 주체 개념 역시 역동적인 상호관련

을 가지면서 변화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정치적 주체의 수용과 확산 및 정착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웅, 진화, 진보, 문명 등 유사 개념과의 접합양상을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유사한 동종 개념을 분리하여 각기 다루게 되면, 다른 개념과의 접합양상을 살피는 방법 곧 명칭론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훨씬 축소되어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2) 개념사와 사회사의 종합 혹은 접합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한국 근대 개념 수용기의 개념의 변화 양상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개념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념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었던 것인가? 물론 크게 보면 개념이란 쌍방향적인 변화의 산물이겠지만, 한국에서 개념의 수용기, 다시 말하면 번역된 개념어가 지시하는 정치적 주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의 개념 수용의 경우에는 후자가 훨씬 우세한 형태를 띠지 않았을까? 여기서는 박명규의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찬찬히 따져 보려 한다.

박명규는 “[량치차오(梁啓超)가] 천하와 조정은 있으나 국가가 없고 노예는 있으나 국민은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약화요인을 찾고, 새로운 국가(정치체)와 국민(주체)의 존재를 요구했던바, 이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주장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였다고 본다. 다시 말해 수동적인 인민을 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가진 ‘신민(新民)’으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국민이 형성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²⁾ 요컨대 동아시아에서는 공통적으로 개념의 수용을 통하여 새로운 주체와 정치적 현실을 구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 개념이 수용되던 역사적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로운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서 중국과 일본에서 논의

9) 박명규, 2009, 앞의 책, 52쪽.

10) 박찬승, 2010, 앞의 책, 27쪽.

11) 강동국, 2009, 「근대한국의 국민/인민/민족 개념」, 하영선 외 지음, 앞의 책, 249~288쪽.

12) 박명규, 2009, 앞의 책, 79쪽.

되던 국민 개념은 근대적 주권을 담지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국가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개념으로 제기”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유럽 계몽사상에서 강조된 nation의 번역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그런 의미를 공유한 상태로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¹³⁾

그러나 정치적 현실은, 일본이든 중국이든, 서구와(혹은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과 등등) 동일하게 구축되지는 않았다. 정치적 현실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반드시 개념의 굴절이 개입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굴절의 내용이 반드시 명확히 되어 있다고 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박명규는 국민 개념이 쉽게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굳이 일본 국체론의 영향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군주중심적인 국민 개념에 친화성을 보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많은 교과서들은 가족국가론 내지 군주주권론과 같은 국민 개념을 적극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⁴⁾ 이는 nation의 번역어로서의 국민이 동아시아에서 친화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타견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nation=국민은 people=인민과 처음부터 경쟁하는 관계에 설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한국에서 ‘민족’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용어가 먼저 수용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에서 nation의 번역어가 만들어지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처음으로 nation의 번역어로 국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는 국민의 자격 요건으로 애국심을 강조하였고, nationality를 국체로 번역하여 국민은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하여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독일 학자 블룬칠리(J. C. Bluntschli)의 저서를 번역하면서, 독일어의 nation을 민족(처음에는 民種)으로 volk를 국민으로 번역하였다. 가토의 이런 번역

은 블룬칠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는 달리 독자적인 개념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1880년대 말 이후 국민과 분리된 민족 개념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다.¹⁵⁾ 국내정치에서는 국민 개념의 우위가 유지되었던 반면, 제국주의와 연관된 국제정치 맥락에서는 민족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소수 지위에 머무르고 있었다.¹⁶⁾ 물론 이 단계에 이르면 일본의 국민과 민족 개념에는 서구 개념을 수용하는 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정착하게 된다.

한편 한국에서도 1908년 이후가 되면 국민은 민족 개념과 뚜렷하게 구별되기 시작한다. 즉 국민 자격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격이 없는 국민은 국민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동일한 정신과 이해, 조직과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이렇게 본다면 nation 개념은 일본, 중국, 한국에 수입되면서 처음에는 군주주권론과 친연성을 가지는 국민이라는 번역으로 주로 정착하게 되었으나, 차츰 민족이라는 번역이 우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정치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념의 퇴조가 정치현실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다른 한편, nation의 번역어인 국민이 민족으로 대체되면, 기존의 국민은 새로운 어의(語義)의 변화를 수행하게 될 터인즉, 그 변화의 성격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nation은 민족으로, people은 국민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 이런 현상은 해방 이후 남북한 사이에 국민과 인민 개념으로 주체개념을 분유(分有)하게 된 이후에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논리적으로 볼 때, 해방 후 남한에서 사용된 국민이라는 개념은 첫째 nation이 함의하는 바의 일부분 곧 nation 가운데서 민족

13) 박명규, 2009, 앞의 책, 81쪽.

14) 박명규, 2009, 앞의 책, 85~86쪽.

15) 박양신, 2008,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nation 개념의 수용사」, 『동양사학연구』 104, 235~265쪽.

16) 강동국, 2009, 앞의 논문, 267~278쪽.

17)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30일자 「민족과 국민의 구별」; 박명규, 2009, 앞의 책, 93~94쪽.

이라는 번역어가 함의하는 바를 제외한 주체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둘째 people의 번역어인 인민이라는 용어를 북한에서 전유하게 됨으로써 남한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people=인민이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바를 함께 포용하는 것이어야만 했다. 바꿔 말하면 해방 후 남한에서 사용된 국민이라는 개념은 nation과 people라는 두 가지 용어의 일정 부분을 함의하는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이라는 개념은 심각한, 어쩌면 천양지차의 어의 변화를 겪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지을 수 없다.

또 citizen의 번역어인 시민 개념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동아시아 3국의 어느 곳에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시민사회의 토대가 현저히 약한 구성을 갖고 있는 경우 곧 개념이 지시하는 내용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번역 개념어가 수용될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¹⁸⁾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개념이 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그 사회에 내재하는 사회적 실체와 대응하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념사 연구는 개념이 정착하는 조건을 탐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두 저작은 nation과 관련한 주체 개념을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이런 사회적 조건을 개념과의 상호관련 아래에서 탐구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3) 전통적 개념과의 관련성을 설정하는 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또 전통 개념과의 관련성을 추구하는 데에서, 개념의 분리가 초래하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박찬승은 '족류'라는 개념을 전

근대시기 민족의 유사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¹⁹⁾ 과연 족류 개념만으로 민족의 유사 개념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족류라는 개념을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족류를 사용함으로써 민족 개념에서 누락된 민 개념의 유사 개념들 곧 서민(庶民), 여민(黎民), 억조(億兆), 중서(衆庶), 만민(萬民), 창생(), 방민(邦民), 국민(國民), 민인(民人), 시민(市民), 신민(臣民), 백성(百姓) 등의 개념을 같이 다루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족류라는 개념을 민족 개념에 대응시킴으로써 민 개념을 누락시키고, 이에 따라 민족 개념에 부당하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족류 개념은 인종 개념 등의 에스닉 그룹과 유사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진 개념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족류 개념을 발굴한 것은 박찬승의 연구에서 가장 큰 기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는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명규의 경우에도 '국민'의 유사개념을 추적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조선시기의 '국민'이라는 개념 속에서 "일정한 정치공동체와 그에 속한 구성원을 범주화하는 의식이나 감각은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고 있는데,²⁰⁾ 이런 측면에서라면 전근대시기에도 유사개념어를 추적하는 명칭론적 접근을 활용하면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동종 유사 개념을 분리하여 접근한 것은 유사한 전통적 개념군에 대한 명칭론적 접근을 가로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제약은 개념사 연구를 연구자의 암묵적 전제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할 수 있다.

18) 박명규, 2009, 앞의 책, 4장 시민 항목 참조.

19) 박찬승, 2010, 앞의 책, 50~54쪽.

20) 박명규, 2009, 앞의 책, 59~61쪽.

3. 한국 개념사 연구의 미래

1) '말안장기' 개념의 설정과 개념사 연구

코젤렉은 '말안장 시대(Sattelzeit)²¹⁾ 혹은 '문턱의 시대(Schwelienzeit)²²⁾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고전적인 상투어들이 심각한 의미변화를 겪는 한편으로 신조어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면서 '의미론 투쟁'이 시작하는 지점, 곧 독일의 언어공간에서 '새 시대'라고 불렸던 위기상황이 바로 말안장 시대라는 것이다.²³⁾ 그리고 말안장 시대에 일어난 언어표현의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이 있었다고 한다. 1) 사회적 정치적 개념들이 점차 대중으로 넓혀지는 과정 곧 민주화, 2) 언어 의미들이 분명한 시간의식을 감싸면서 역사적 목적 개념이 나타나는 현상 곧 시간화, 3) 개념들이 집합단수로 쓰이면서 보편화와 추상화의 수준으로 상승하는 이념화 현상, 4) 일상개념들이 투쟁개념으로 발전하는 정치화 과정 등이 그것이다.²⁴⁾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개념의 수용기만을 말안장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박명규는 한국에서의 개념 체계의 전면적 전환은 "독자적 번역 없이, 제국주의화하는 일본의 번역어를 통해 서구와 접맥하게 되는 독특한 '역사적 전환기'에 수행되었다고 보고 있다.²⁵⁾ 말을 바꾸면 전통적 개념어를 서구적 개념어가 대체해 가는 과정이 바로 전환기이자 말안장 시대라는 것이다.²⁶⁾

21) 박명규는 말안장기를 안착기로 번역하고 있지만, 안착기라는 번역은 말안장기라는 용어가 주는 고유의 어의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는 지적이 있다. 한림대학교 한림과 학원 '제30차 동아시아 개념소통 포럼(2010년 11월 11일)'에서 박근갑 교수의 지적. 이런 지적에 따라 여기서는 말안장기라는 번역을 사용하기로 한다.

22) 멜빈 리히터, 2009, 앞의 논문, 198~199쪽.

23) 박근갑, 2009, 「'말안장 시대'의 운동개념」, 박근갑 외 지음,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31~57쪽.

24) 박근갑, 2009, 앞의 논문, 31~33쪽.

25) 박명규, 2009, 앞의 책, 260쪽.

26) 박명규, 2009, 앞의 책, 267쪽.

그러나 서구의 번역 개념을 단순하게 수용하고 그것이 '굴절'하는 형태로 정착하는 것을 '말안장'을 엮어 출발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박명규의 분류에 의하더라도, 1950년대 이후 결정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야 국민, 인민, 시민 등의 정치적 주체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²⁷⁾ 시민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그런 특성을 드러내고 있고, 국민이나 인민의 경우에도 해방 후에야 그 개념의 내포가 현실과 의미 있는 대응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²⁸⁾ 요컨대 주체의 폭발과 아울러 개념의 폭발은 해방 후에 일어난 사태가 아닐까?

위 코젤렉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언어 표현에 일어나는 변화는 근대전환기보다는 1950년대 이후의 그것이 훨씬 더 현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민주화와 이념화, 정치화 등의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아니면 한국에서는 두 번의 개념의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가? 과연 어느 시대가 '개념들이 앞으로 달려오는 시간을 향해 달려 나가기 시작'한 시대 곧 말안장 시대였던 것일까?²⁹⁾

2) 이데올로기 연구인가, 개념사 연구인가?

박찬승에게 민족과 민족주의는 20세기 한국사를 이끌어 온 동력과 같은 존재로 간주된다.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있었기에 독립운동도 가능

27) 박명규 역시 한국의 개념사는 20세기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점을 감안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박명규, 2009, 앞의 책, 47쪽. 그러나 말안장기라는 개념은 이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28) 송승철 역시 한국에서는 개념이 의미론적으로 현저하게 확대되고 또 정치적·이념적 대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해방 이후에 오히려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송승철, 2010, 「개념사적 접근과 한국 근대」, 멜빈 리히터(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비판적 소개』, 송승철·김용수 옮김, 소화, 9~15쪽(Melvin Richter, *The 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9) 박근갑, 2009, 앞의 논문, 31~57쪽.

했고, 국가 건설과 경제 부흥도 가능했고, 또 통일을 위한 노력도 가능했다”는 것이다.³⁰⁾ 이런 점에서 보면 박찬승에게 민족은 개념어로서 개념사 연구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민족사를 이끌어 온 주체 개념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과연 그렇다면 개념의 다의적 사용과 갈등, 전화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개념사 연구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부당한 전제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은 박찬승이 서양의 민족 개념 형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지 않고, <민족 개념의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이유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겠다. 서양의 민족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민족이론을 정리해 두어야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³¹⁾ 그러나 코젤렉의 개념사 연구에 따르면, 개념은 단어가 아니므로 정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해석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겠는가?³²⁾

또한 박찬승은 민족형성 이론에서는 ‘도구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신분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귀속된 집단에 대한 공속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민족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³³⁾ 그는 ‘족류’라는 개념을 *ethnie* 정도의 함의를 가진 용어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족류 개념을 해석하는 것과 민족형성 이론에서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아닐까? 족류 개념이 민족 개념과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 변환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등의 문제를, 개념의 변화를 통해 해석하는 일이 개념사 연구의 본령이 아닐까 싶다. 개념사 연구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학문적 방법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박찬승은 민족주의 항목에서도 서양의 민족주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는 것으로 개념사 연구를 출발한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가 근대 이전에 형성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전근대의 민족 개념 혹은 *ethnie* 등 그 유사개념과 병립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현실에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가 동떨어져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박찬승 자신도 인정하듯이, 특히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사 연구 부분에서는 개념사 연구가 아니라 사상사 연구가 되어버린 측면이 강하다. 그는 “민족주의 부분에 대한 서술은 한국인들이 민족주의를 어떻게 이해했고, 이를 활용하여 어떤 민족주의를 만들어 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³⁴⁾

그의 연구가 이렇게 귀결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가 내세우는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민족과 민족주의 모두에서 ‘개념의 특별한 변화나 논쟁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한다.³⁵⁾ 심지어 그는 개념의 수용이 겨우 백 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외래어와 관련된 개념사 연구의 경우, 개념의 수용사와 활용사 정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³⁶⁾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코젤렉의 정의에 따르면,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개념사 연구에 적합한 개념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개념으로서의 다의성과 역사성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의 단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³⁷⁾

다른 하나의 이유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선입견이 민족이나 민족주의를 다의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려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개념의 창조가 아니더라도, 개념 수용에서의 다의성이나 역사성은

30) 박찬승, 2010, 앞의 책, 40~41쪽.

31) 박찬승, 2010, 앞의 책, 27~41쪽.

32) 나인호, 2009, 앞의 논문, 161~190쪽.

33) 박찬승, 2010, 앞의 책, 27~41쪽.

34) 박찬승, 2010, 앞의 책, 11쪽.

35) 박찬승, 2010, 앞의 책, 11~12쪽.

36) 박찬승, 2010, 앞의 책, 19~20쪽.

37) 나인호, 2009, 앞의 논문, 161~190쪽.

매우 역동적인 과정일 수 있다. 개념 수용의 주체를 둘러싸고 심각한 투쟁이 연출될 수도 있으며, 개념 활용의 수준에서도 심각한 차이를 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이런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사상사 연구가 되고 말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민족주의 항목을 제쳐 두고 민족 개념만을 두고 보더라도, 그의 접근 방식은 지나치게 평면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개념사 연구는 이처럼 이데올로기 연구나 사상사 연구로 변화해 버리기 십상이다. 특히 사회과학적 개념의 수용을 서구 근대 사상의 수용과정으로 오해할 경우에는, 개념사 연구가 사상사 연구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³⁸⁾ 이런 점에서 개념사 연구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서, 박찬승의 연구는 일종의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근대성 패러다임으로서의 개념사 연구를 넘어서

개념사 연구는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개념사 연구에서 상정하는 개념의 생성과 확산과 정착, 수용 등의 과정은 다분히 직선적인 진보의 과정과 유사성을 가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십상이다. 개념사 연구가 이러한 근대성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개념의 직선적 진보와 개념의 새로움만을 강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판이론으로서의 대안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박명규는 자신의 연구가 가진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국민이라는 말이 갖는 오래된 함의와 더불어 그 말이 큰 힘을 갖지 못했던 역사적 조건” 그리고 “국민 개념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정치사회적인 힘을 강하게 획득하게 되”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국민 개념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념의 연속성과 그 변화의 과정’을 검토하는 것을

38) 하영선 외 지음, 2009, 앞의 책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에서도, 개념사 연구가 아니라 사상사연구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는 경우를 쉬이 찾을 수 있다.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³⁹⁾

그러나 서구 개념사 연구의 성과에 따르면, 관념(이념)사가들에게는 오류의 원인이 되는 개념의 다양성과 그리고 모호함과 혼란스러움이 역으로 개념사 연구자들에게는 개념의 진정한 특성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주요 개념들은 언제나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개념은 항상 형성되고 수정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므로 개념은 언제나 진화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이념이나 관념처럼 진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⁴⁰⁾ 개념사 연구가 개념의 단선적 진보와 그 새로움만을 강조한다면, 개념사 연구는 진부한 사상사, 이념사 이상의 연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옳다.

그렇다면 개념사 연구가 갖는 비판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은 어떤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개념사 연구가 이데올로기 연구 혹은 어원학이나 용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나아가 서구적 방법론의 단순한 수용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은폐되어 있는 식민주의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은폐된 식민주의적 맥락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구 개념의 번역과 굴절된 수용을 추적하고 해석하는 것이 근대성 패러다임으로서의 개념사 연구가 드러내는 표면적 효과라고 한다면, 과연 번역과 수용의 매끄러운 묘사는 근대성을 확인하는 과정 이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서구의 근대성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전락하는 개념사 연구를, 과연 식민주의의 도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근대성의 기획은 언제나 그 매끄러운 표면 아래에 식민성의 음침함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39) 박명규, 2009, 앞의 책, 53쪽.

40) 델빈 리히터, 2009, 앞의 논문, 191~227쪽 참조. 반면 나인호는 “관념(이념)은 진화할 수 있지만, 개념은 진화할 수 없고 단지 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인호, 2009, 앞의 논문, 161~190쪽. 나인호는 진화와 진보 개념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유사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조그만 오해를 초래한 것처럼 보인다. 개념은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경쟁을 거쳐 한 사회에서 폐기되거나 정착하는바, 이를 두고 개념이 진화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을 것지만 진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념은 언제나 해석의 대상 이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념사 연구는 매끄러운 근대성의 수용 양상을 추적하거나 단절을 메우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곧 개념의 연속보다는 <전통의 단절>이나 <개념의 폐기>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번역된 서구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이중의 굴절을 경험한 한국의 경우에는, 번역어의 수용 자체가 개념의 내포 자체를 제한하고 개념의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념의 표준화로부터 자유로웠으므로 훨씬 빨리 그리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런 수용 범위로부터 배제된 개념은 재빨리 폐기되거나 자취를 감추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서의 번역어 수용 양상은 표면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저 매끄러운 과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울퉁불퉁한 과정이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선적 개념의 발전사로 개념사를 볼 것이 아니라 개념의 고고학적 발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개념사 연구가 가질 수 있는 비판성과 전복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 더 잘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분석 단위로서의 개념이 다른 분석단위 곧 담론이나 에피스테메 혹은 스타일 등의 단위보다 더 유용한 방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개념은 역사의 변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일 뿐, 이론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⁴¹⁾ 그리고 개념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개념사는 정치와 통치 그리고 사회 분야 어휘체계의 핵심적인 변동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독특한 형태의 지식일 따름이다.⁴²⁾ 개념사는 개념이라는 도구를 대상으로 삼는 새롭고 독특한 해석체계이자 지식의 형태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념사 연구를 울퉁불퉁한 '식민지근대'의 특성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체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듯싶다. 그렇게 될 때 개념사 연구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나 기억 연구 등의 새로운 문제의식과도 접합하게 될 것이다.

41) 송승철, 2010, 앞의 논문, 9~15쪽.

42) 멜빈 릭터, 2010, 앞의 책, 243~245쪽.

■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근갑 외 지음, 2009,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서울: 소화.
 박명규, 2009,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서울: 소화.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서울: 소화.
 하영선 외 지음, 2009,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서울: 창비.
 릭터, 멜빈(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비판적 소개』, 송승철·김용수 옮김, 소화 (Melvin Richter, *The 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 논문

- 강동국, 2009, 「근대한국의 국민/인민/민족 개념」, 하영선 외 지음,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나인호, 2009, 「개념사는 어째서 새로운가」, 박근갑 외 지음,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박근갑, 2009, 「'말안장 시대'의 운동개념」, 박근갑 외 지음,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박양신, 2008,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nation 개념의 수용사」, 『동양사학연구』 104집.
 송승철, 2010, 「개념사적 접근과 한국 근대」, 멜빈 릭터(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비판적 소개』, 송승철·김용수 옮김, 소화.
 이현미, 2009, 「대한제국의 '영웅' 개념」, 하영선 외 지음,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리히터, 멜빈, 황정아 옮김, 2009, 「개념사, 번역, 그리고 상호문화적 개념 전이」, 박근갑 외 지음,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Abstract

The Division and Integration of the Political Subject

— A study of Pak Myōng-kyu and Pak Ch'an-sūng about the
History of Concepts—

Hae-dong Yun(Sungkyunkwan University)

■ **Key Word** : History of Concepts, Political Subject, Nation, People, Citizen,
Nationalism

The two books on the history of concepts—Pak Myōng-kyu's *Kukmin, Inmin, Simin* (“Subject, People, Citizen”) and Pak Ch'an-sūng's *Minjok, Minjujuŭi* (“Nation, Democracy”)—are praiseworthy in three respects. First, their research topics are particularly difficult political concepts; second, they properly address the process through which western concepts were translated in Japan or China and accepted in Korea; and, third, their research is strongly linked to critical issues of social history. Broadly speaking, while Pak Myōng-kyu's work moves toward the “social history of language”, as it takes on the approach of semasiology, Pak Ch'an-sūng's work has the effect of a “historical semantics”, as it takes on the approach of onomasiology. However, unintended consequences are not minor because, separately, the two books deal with similar concepts concerning the subject of politics. First, they fail to trace the overall, changing

aspect of the political subject, and, second, problems can be found in their connection between history of concepts and social history.